

서울 촌놈의 로컬크리에이터 취재 일지



농민신문

조은별 기자



서울 촌놈. 기자의 자기소개다. 서울 송파구에서 태어났고 수도권 밖에서 산 적이 없다. 그런데 입사 첫째 맡은 꼭지가 비수도권에서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는 기업을 돕는 ‘지역을 바꾸는 로컬크리에이터’ 라니! 인구 부족, 문화 인프라 부족, 일자리 부족이란 세 부족의 텃세를 겪지 못했는데 이들과 교감할 감량이 될까? 눈앞이 깜깜해졌다.

포기할 순 없었다. 자전거 타기를 글로 배우는 격이지만 조사를 시작했다. 일단 지방에서 나고 자랐거나 귀촌한 청년이 창업하며 겪는 문제를 짚어봤다. 지방소멸의 현실을 다룬 기획 기사부터 각 지방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자료까지 찾아 보니 크게 세 가지로 좁힐 수 있었다. 텃세, 판로 부족, ‘노잼 도시’. 이때 노잼 도시는 놀거리가 부족해 재미가 없는 지역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로컬크리에이터는 곁을 쉽게 내주지 않고, 판매처도 적고, 재미도 없는 지방에 왜 자리를 잡은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이 세 축을 중심으로 삼아 취재에 나섰다.

“텃세의 또 다른 이름은 연대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반려동물 간식을 제조하는 홍진수 ‘제주펫’ 대표의 한마디다. 제주는 섬이라는 지형 탓에 외지인에게 좀처럼 속을 열지 않기로 알려진 곳이다. 관광지로야 더할 나위 없지만, 이주해 사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들 한다. 그러나 홍 대표는 용기를 냈다. 경기 화성 출신에, 그저 캠핑을 즐기러 두세 차례 제주로 와본 것이 다였지만.

예상대로 이주민이 겪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찾아왔다. 그때마다 원주민을 비난하기보단 자신을 돌아봤다. 서두르지 않고 제주 곳곳에 새겨진 역사를 공부하고, 주민의 오랜 아픔을 헤아렸다. 땅에 깊이 뿌리내린 감정을 이해하자 텃세가 달



박승규 마사나이 대표는 이제는 사라진 지명인 '마산시'를 기억하며 다양한 기념품을 만든다. 그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전국에 퍼져나갔다. 사진=김도웅 프리랜서 기자

디자인 브랜드 '마사나이'의 박승규 대표의 당찬 조연이다. 마사나이는 경남 창원에서 2010년 행정 통합으로 사라진 마산시를 기억해 다양한 기념품을 만드는 기업이다. 옛 지역색이 듬뿍 담긴 모자·티셔츠·양말·찾잔·라이터·소화기·열쇠고리는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간다. 그 비법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홍보하고 소비자들과 소통하며 판로를 마련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건 아니다. 박 대표는 마산이 장애품같이 느껴졌다고 한다. 지방에서 디자인으로 성공하기 어려워 성인이 되자마자 고향을 떠났다. 영국 코번트리대학에서 감각을 익히고 서울로 가

경력을 쌓았다. 그러다 고향 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들은 한마디에 신기하게도 마음이 동했다. “뉴욕에서 공부한 친구가 뉴욕·도쿄·파리 같은 도시명은 브랜드에 활용하는데 마산은 왜 안 되냐”는 농담에 박 대표는 시험삼아 도전에 나섰다.

마사나이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온라인의 영향력이 크다. 2022년 3월, 서울 가로수길에서 마산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일주일간 팝업스토어를 열었는데 유명 록밴드 노브레인의 보컬 이성우씨가 매장을 찾아온 것이다. 이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매장 전경을 담으며 “마산 청년이 지역을 기억하고자 힘쓰는 모습을 보



김영록 락앤런 대표는 전북 장수만의 매력을 발굴해 2500여명이 모이는 트레일레이스를 열었다. 장수의 초원·산·계곡은 서울에선 따라할 수 없는 또 다른 재미다. 사진=강재훈 프리랜서 기자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는 장수에서 재미를 발견하고, 새롭게 정의내린 듯했다. 물론 수도권엔 문화 시설도 많고 놀거리도 다양하겠지만, 이곳엔 서울에서 따라할 수 없는 푸른 승마 로드, 시원한 계곡, 전망 좋은 논개 활공장과 팔공산·신무산·장안산이 있다. 초원·산·계곡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재미인 것이다.

기사를 쓰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창 밖으로 도시숲의 불빛이 쏟아지는데 문득 그것들이 전보다 조금 덜 빛나 보였다. 이미 더 많은 빛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버린 탓이었다. 비수도권이라는 단어로

묶어버리기엔 너무도 다채로운 이야기들이 방방곡곡에서 빛나고 있었다. 기자는 현장에서 지식을 뽐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그곳에서 살아 숨 쉬는 이야기를 받아 적는 사람이라는 걸 이 연재가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서울 촌놈은, 그렇게 조금 촌티를 벗었다. 🍷

농민신문 조은별 기자